

SGC에너지, 상반기 매출 8,387억 원에 영업이익 612억원

- ▶ 2분기 매출 4,228억원, 영업이익 303억원 달성...하반기 기대감 훨씬 커
- ▶ 2021년 가이던스, 매출 1조 8,185억원 달성 무난 예상
- ▶ 에너지, GE4 정비로 인한 가동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 유지
 - ▶ 건설, 솔루션 등 자회사 실적도 증가추세 지속

<2021-07-27>SGC 에너지(대표 이복영, 박준영, 안찬규)가 지난 상반기에 매출 8,387 억원에 영업이익 612 억원을 달성했다고 27 일 밝혔다. 2 분기에는 매출 4,228 억원과 영업이익 303 억원을 달성했다.

건설부문, 유리사업부문 등은 전 분기 대비 큰 폭의 실적 상승을 기록해 올해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예고했다. 이로서 상반기까지 견조한 실적을 유지, 하반기 에너지와 건설의 성수기를 감안하면, 2021 년 목표달성이 무난해 보인다.

SGC 에너지 박준영 대표는 "지난 2 분기에 가장 큰 규모의 보일러 GE4 (Boiler 950t/h, Turbine 250MW)에 대한 정비가 있었음에도 SMP 가격 상승과 건설, 솔루션 등 자회사의 성장으로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"며 "하반기에는 GE4 로 인한 공백이 없는 데다 유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에너지 본업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"고 말했다.

지난 1 분기 SMP 의 평균 가격은 76.5(원/kwh) 였으나 2 분기 평균 가격은 79.5(원/kwh)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. 7 월 들어서는 90(원/kwh)원대까지 오르고 있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SMP 추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발전·에너지부문의 매출 증가는 하반기로 갈 수록 더 확대 될 전망이다.

자회사 SGC 이테크건설은 매출 3,109 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.4%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04 억원으로 직전 분기대비 71% 급증했다. 플랜트와 토건사업부문의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이익이 크게 늘었다. SGC 솔루션도 온라인 매출증가와 해외 매출 상승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했다.

SGC 에너지 박준영 대표는 "연초 제시한 올해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미 50% 수준을 달성한데다 하반기에는 시장상황이 훨씬 좋아 가이던스 달성은 무난할 것"이라며 "연내 100% 바이오매스 발전소인 SGC 그린파워의 상업운전도 예정되어 있다"고 말했다.

SGC 에너지는 올해 가이드선으로 매출 1 조 8,185 원을 제시한 바 있다.

한편, OCI 계열사인 SGC 에너지는 지난해 (구)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의 투자부문 그리고 (구)군장에너지 등 3 사가 합병한 사업형 지주회사다.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집단에너지사업 선두주자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.